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4월 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2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4. 2(화)	담당부서	원전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정종영 과장(044-203-5320)	담 당 자	유의택 사무관(044-203-5325)

원전 중소·협력업체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

❶ 원전기업지원센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, 유지·보수 로드맵 공개, 인증비용 지원, 해체산업 진출 등 기업 지원방안 발표

❷ 주기적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원전생태계 유지·보완

□ **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성윤모)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**은 4.2.(화) 원전 기업지원센터에서 원전기업들과 **간담회**를 개최하여, **원전 산업계의 현황을 점검**하고, **지원방안을 발표**했다.

○ 지난해('18.11.22.) 개소한 원전기업지원센터는 **권역별 설명회**('19.1월), **업체별 설문 및 방문조사**('19.1~3월) 등을 추진해왔다.

○ 이번 간담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**원전 산업생태계의 객관적인 현황을 진단**하고, **기업들의 경영애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**하기 위해 개최했다.

< 원전 중소·협력업체 간담회 개요 >

○ **일시/장소** : '19.4.2(火) 17:00~18:00 / 한국원산회의

○ **참석자** : (정부)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
- (공공) 한수원, 한전기술, 한전연료, 한전KPS, 원자력환경공단, 원산회의 대표
- (민간) 두산중공업, 협력업체(6개社) 대표
  * 우리기술, 우진, 에너시스, 태양기술개발, 승진이엠씨, 이에스다산

○ **진행** : 실태조사 결과 발표 → 애로사항 지원방안 발표 → 애로사항 청취

※ 원전기업실태조사 결과 (3.29 원산회의 보도자료 참조)
- '18년 원전산업은 매출과 고용측면에서 '17년 대비 큰 변화 없음
- '19년에도 대다수 원전기업들이 사업 및 고용을 유지할 전망

2019년 4월 11일은
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입니다

□ **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 원전 공기업들**은, 원전 중소·협력 업체들의 **구체적 애로사항을 지원**하기 위해 **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**을 마련했다.

❶ 원전 안전성 강화 및 유지·보수 사업 로드맵('19~'30) 수립

○ 기업들의 **일감확보 및 예측 가능한 사업운영**을 지원하기 위해 **가동원전에 대한 안전투자 확대 로드맵** 수립·발표

※ 상세 설비투자 목록은 한수원 보도자료(4.2) 및 한수원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(매년 향후 10년간의 설비투자 계획을 지속 업데이트 예정)

○ 이번 수립·발표된 로드맵에 따라, 한수원은 **'30년까지 약 1.7조원 이상**의 설비보강, 예비품 발주 등을 추진할 계획

구분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	'24년	'25년	'26~'30년	합계
건수	213	83	37	19	17	20	19	23	**431**
금액 (억원)	3,161	3,271	2,417	1,625	767	897	1,635	3,444	**17,217**

❷ 국내·외 인증 취득·유지비용 지원 확대

○ 한수원 납품과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내·외 인증의 취득·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**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('19.4)**

지원 사업		유자격 등록		KEPIC 인증		해외 인증	
		기존	변경	기존	변경	기존	변경
연간 지원기업 수		20社	선정기업 전부지원	20社	선정기업 전부지원	10社	선정기업 전부지원
지원 금액	순수 취득비용	2천만원	전액지원 (평균 2.2천만원)	2.5천만원	전액지원 (평균 3천만원)	3천만	전액지원 (평균 6.1천만원)
	컨설팅비용				2천만원(차등)		2천만원(차등)

※ 상세 내용은 한수원 보도자료(4.2) 참조

○ 더불어, 보조기기와 예비품 등 **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·협력업체들의 독자적 해외진출 촉진**을 위해, **중국, 러시아 등의 해외인증**에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추가 검토

❸ 해체사업 세부공정 공개 및 해체전문기업 확인·추천제 마련

○ 해체사업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을 위해, 고리1호기 해체공정 정보를 **'19.12월까지 공개**할 예정

○ 더불어, 「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」 수립('19.4 예정)시 **해체전문기업 확인·추천 제도** 마련을 검토할 계획

❹ 금융지원 확대, 연구개발(R&D)지원 확대, 예비품 선발주 등

○ **(자금) 선급금지급 확대**(지급비율 '18년 51.4% → '19년 56.4%), **에너지 혁신성장펀드***(500억원 이상, '19.下) 조성 등을 통해 업체들에 자금 애로 및 자본금 확충 지원을 추진

* 원전 매출비중이 높은 기업, 해체·소형원전 등 신규분야 진출 희망기업 등에 투자

○ **(R&D)** 에너지전환 시대의 원자력 연구개발(R&D)에 대한 **중장기 이행방안(로드맵, Nu-tech2030)을 수립**('19.5)하고, 한수원 연구개발(R&D) 예산을 **향후 5년간 70% 이상 확대**('14~'18년 827억 원/년 → '19~'23년 1,415억 원/년)

○ **(선발주)** 신고리 5·6호기에 적용되는 **주요 원자로 설비**(원전계측제어시스템, 원자로냉각재펌프 등)**의 예비품**에 대해 발주일정을 당초 계획 대비 **2년 단축**(당초 '23.4월 → 변경 '21.4월)

□ **주영준 실장**은 **"정부는 원전의 안전운영에 필요한 산업생태계를 유지한다는 정책적 의지가 확고하다"**고 강조하고, **"원전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."**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의택 사무관(☎ 044-203-53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